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 700 호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여의도 노크하는 한동훈·원희룡·박민식…출마자·역할 주목

선대위원장이냐, 이재명과 빅매치냐…당내서 '韓·元 역할론' 분출
박민식, 野에 8년 뺏긴 분당을 희망…김은혜와 교통정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스타 장관'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출마 지역구가 어디로 정해질지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할지 갖가지 의견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우선 한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내에서 차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분위기다.

최근 한 장관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보인 행보를 두고 본인 역시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음을 보여준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장관은 출마하는 분위기로 봐야 한다"며 "당에서도 한 장관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 '차출'을 건의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현실화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역할은 총선 때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 경우 당 전체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비례대표 앞순번이나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장관을 험지로 보내면 당이 '한동훈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어렵지 않은 지역에 출마시키거나 비례대표를 주고 선대본부장 역할을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당의 '취약지'인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 장관의 출마지는 양당의 선거전략과 구도가 정해지는 내년 1월 말~2월 초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 장관의 경우는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변수에 맞대응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당으로 복귀할 경우 선거대책위원장은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개인 선거와 당 전체 선거를 병행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 장관은 당의 전략에 따라 어느 지역구에 투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원 장관의 출마 지역 후보군으로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는 곳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성과를 앞세워 경기도 고양 등 경기 북부권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거론된다.

지도부 한 인사는 통화에서 "원 장관은 수도권에서 어디로 출마할지 열려 있는 상태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다. 어떤 게 당에 플러스가 되는 선택인지에 따라 지역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원 장관의 출마지 역시 민주당 상황을 봐 가며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전후가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부산에서 재선을 지난 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할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로 도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데다, 경기도 용인·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라 여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주요 고지다.

박 장관은 작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갑에 도전하였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한 차례 출마를 '양보'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다.

다만 분당을은 김은혜 대통령실 흥보수석의 출마도 거론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송진영 기자

Photo News



행정 전산망 복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증명서 발급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전자발찌' 스토퍼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경보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퍼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퍼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먼저 스토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도 대폭 향상된다.

/ 김은성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합참 “정찰위성 발사 준비 즉각 중단해야”…대북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 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협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송원기 기자

‘이정섭 검사 의혹’ 골프장 등 압수수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

‘처남 부탁에 범죄기록 조회·수사 대상 부회장과 부적절 만남’ 의혹



대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민주당 김의경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

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됐다. 이율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의경 의원 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9기)와 함께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황유민 기자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 한다.

/ 강유정 기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임 경영진의 전횡”이라는 입장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직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범인세 9억여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은 그는 논란 끝에 2018년 구속 됐고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 이형찬 기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



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골프연습장과 서울 중구 티시스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태광CC의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사 내역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티시스는 부동산 관리 및 건설·레저사업 등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과 태광CC, 이 전 회장 자택을 한자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유경준, 롤드컵 우승에 “e스포츠 세액공제법안 통과시켜야”’

한국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일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페이커’는 T1의 주장 이상혁 선수의 활동명이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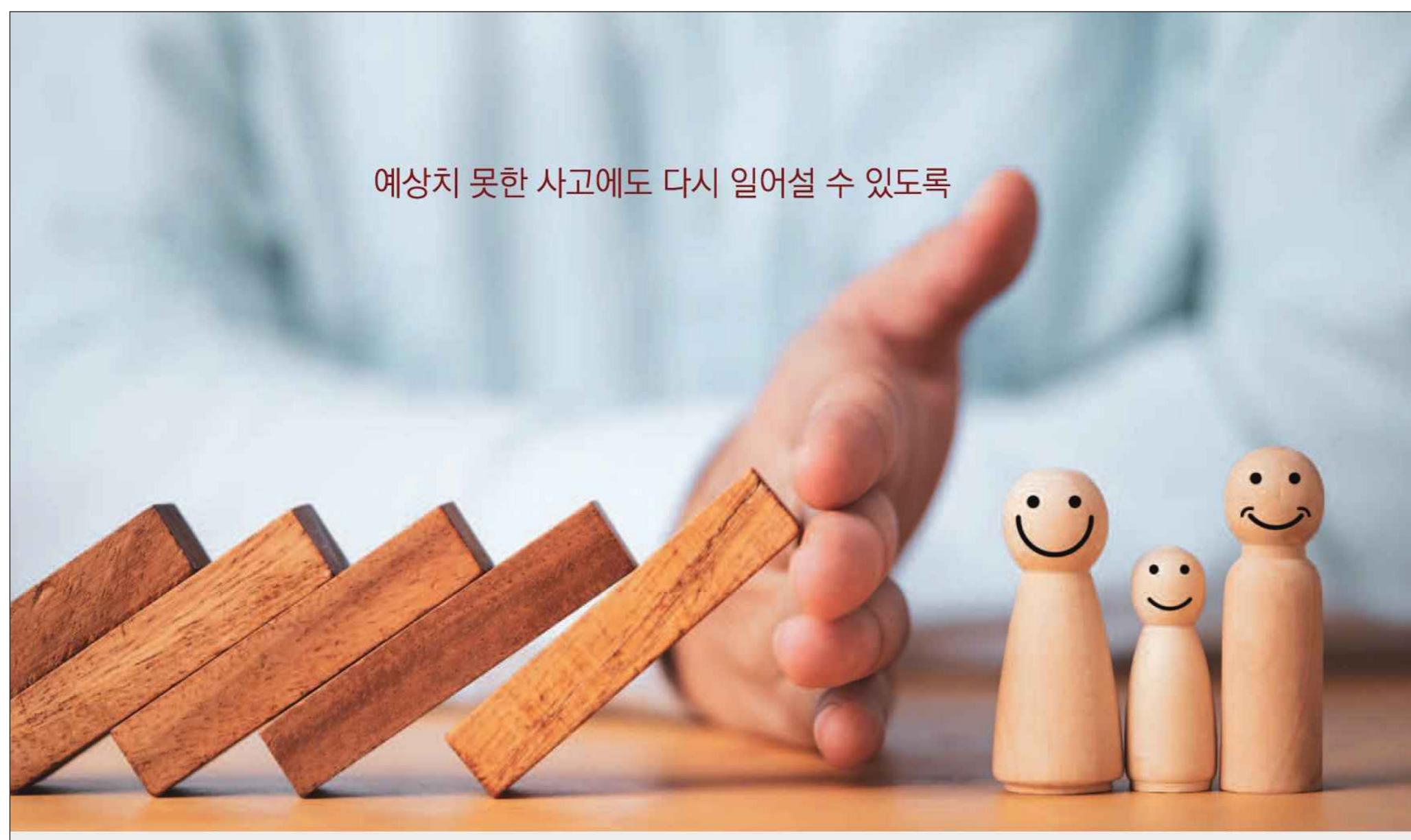
현행법상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또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은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최연주 기자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해보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북, 이르면 금주, 늦어도 30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KBS 일요진단 출연…“북, 기존 미사일 고체연료로 바꾸려면 큰 비용…붕괴 가속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디데이’로 점쳐졌던 ‘미사일공업절’을 하루 넘긴 19일,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벤멘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쓸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위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완전히 성공에 이른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11월 18일)을 맞아 “어제 (고체연료 IRBM)를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한 것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다면 고체연료 시험 성공이 북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1천여발 미사일이 있는데 단거리를 제외하고 실전 배치된 건 모두 액체연료 기반”이라며 “이를 (고체연료 기반으로)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사일에는 첨단 반도체와 탄소섬유 같은 첨단복합소재가 필요한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모두 밀수해와야 한다”며 “우리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체계를 절저히 한다면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은 성공하더라도 이를 양산, 실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설사 (고체연료로 교체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그들의 붕괴를 앞당기는 축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효율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사이에 담과 CCTV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

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체계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재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외압 문제는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바로 외압이며, 법률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외압을 없애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었다”며 “지금까지 약 3천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공 미사일, 대전자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 무기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상당히 유입됐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첨단군사기술 유입과 관련해선 한미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준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

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체

계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재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



보도용 제설 장비

폭설 신속대응·재난본부

서울시 겨울철 제설종합대책 가동

서울시는 겨울철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또 자치구·도로사업소·서울시설공단 등 33개 기관과 협력해 눈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적설량에 따라 1단계(적설량 5cm 미만 예보)·2단계(적설량 5cm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3단계(적설량 10cm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이 강화된다.

시는 그간 차도 위주의 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을 차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작업 제설 방식에서 맞춤형 장비를 투입한 기계식 제설로 전

환한다. 보도·이면도로 제설 장비 300여 대를 추가 도입해 총 50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제설 작업을 지원한다. 폭설 시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보도용 제설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선다.

한파와 폭설로 차도에 얼어붙은 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설 차량의 장비도 강화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설 차량에 ‘고강도 고무납설’을 장착해 2단계 대설주의보 이상 제설작업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제설 측면 구간에는 자동제설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도로 열선 200개소, 염수분사 장치 41개소 등을 경사로 등에 새로 설치해 총 844개소의 자동제설 장비를 운용할 계획이다. 터널·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도로 구조상 결빙의 우려가 높은 21곳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경고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 강동준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뜻합니다

경! 플라스틱 인생 2회차 축!

이번 생은 에코시드로!
새롭게. 이롯게.

자원의 소비가 더 이상 지구의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롯데케미칼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소재 에코시드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시대를 열어갑니다.

ecoseed

Seeds for Tomorrow_에코시드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리사이클 소재 / 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Bio 플라스틱 소재 Every Step for GREEN

민주 “권익위에 윤대통령 검사시절 업추비 사용내역 조사요청”

尹, 중앙지검장 때 업추비 소고기 파티…권익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리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공동위원장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10km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 손현수 기자

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점검…“연체율 관리·충당금 적립”

금융당국이 다음 달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주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전달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반기별로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실시하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인데 최근 부동

산 경기가 둔화하며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로 지난해 말(2.23%)보다 1.98%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은 1.52%에서 2.8%로 1.28%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자 조합에 대해선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체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 적자 조합이 배당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한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배당에 따른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배당 자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실히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고 적자 조합을 추려 빼는 시일 내로 상호금융중앙회에 전달해 점검을 요청하고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중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합장·이사장은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與 “민주당, 청년을 정치 문외한·돈만 밝히는 세대로 낙인찍어”

“청년비하” 현수막, 자의식과잉 운동권의 코미디…노년층·청년층 모두 평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를 두고 ‘자의식 과잉 운동권의 블랙코미디’ 등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과거 민주당의 ‘노인 펜하’ 논란을 소환해 ‘세대 갈라치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표어를 언급하며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왜 미래가 짧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을 정치 문외한으로 비하하거나 경제 개념 없이 돈만 밝히는 세대로 낙인찍는 듯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은 과거엔 곧 무대에서 퇴장할 6070 세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등 노년 세대를 비하했다”며 “말장난으로 세대를 갈라치고 정치 불신만 부추기는 정치는 국민의힘으로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표어를 거론, “이것은 김남국 의원 얘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

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내 청년 인사들도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가 상식 밖의 표현이라며 화력을 보탰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 민심을 전혀 모르고, 본인들이 여전히 청년 세대라 착각하는 86 운동권의 자의식 과잉이 만들어 낸 블랙 코미디”라고 촠평했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기괴하게 봤다”며 “이러한 걸로 어떻게 200석을 하려고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 최성운 기자



여야 의원들과 대화하는 이상민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비명계 이상민 “날 반기면 여당 간다 민주당에 정나미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20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

/ 서종익 기자

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며 “당 대표가 약속한 산업은행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종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여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 여당이 더 책임 있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민주당 탓으

/ 권정석 기자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하느냐’는 질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 당내에선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아 있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미지수고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잔류 여지도 열어뒀다.

‘현시점에 잔류보다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

/ 서종익 기자

이재명 “간병비 삭감 예산 복원시킬것…건보 급여화도 추진”

“한중 관계 회복 위한 유연·실용적 국익중심 외교로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식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희성 기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계도 구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희성 기자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오늘 종료…이상 상황 없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20일 종료된다며 3차 방류 기간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고,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3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4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을 위해 일반 저장탱크에서 K4-B 탱크군으로 주입하는 중으로, 아직 방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4차 방류 계획이 파악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현재 4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을 위해 일반 저장탱크에서 K4-B 탱크군으로 주입하는 중으로, 아직 방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4차 방류 계획이 파악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신자연 기자

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1980년 5·18 당시 실종된 한복집 직원,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대인동 한복집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옛 전남도청으로 향한 뒤 실종됐다.

5월 21일은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시 A씨의 실종 사실을 증언해주면서 겨우 팔을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

애타게 찾다가 한복집 관계자가 5·18 당

도 5·18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2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C씨 등 18명이 낸 국가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C씨 외에도 손해배상을 낸 이들은 1980년 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전두환 퇴진 시위를 주도하다 불잡혀 구타와 고문을 받은 피해자 등도 포함됐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박재호 기자



‘올해만 3번째’ 범인 놓친 광주 경찰

“시민 불안”



신문지에 싸인 고양이 사체

천안 아파트서 고양이 사체 500여마리 발견…7.5t 달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는 4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평소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방문하여 해도 상담을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

며 “폐기물 수거와 특수청소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 대표는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번식하도록 방지한 결과 수백마리의 새끼고양이 사체가 생긴 것”이라며 “발견된 사체는 화장터로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 강동민 기자

지하철역 잠든 취객 폰 슬쩍 스크린도어에 새겨진 범행



스크린도어에 비친 피의자 모습(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상습 털이범은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말없이 지켜보던 스크린도어에 범행이 그대로 ‘저장’돼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일 수법 범죄로 이미 9번 불잡혀 6번이나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출소해 일정한 주거·직업 없이 서울 계암동 등지에서 지내다 출소 62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월 28일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 탐문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은 스크린도어에 비친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지하철 이용객이 드문 심야인데다 승강장 CCTV가 설치 안 된 사각지대인 줄 알고 범행했지만, 맞은편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스크린도어에 고스란히 비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인근 지하철역 등지의 CCTV 80여대를 함께 분석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서울 시내 게임장, 짐짓방 등 주요 배회장소를 주목한 끝에 이달 6일 체포해 이를 뒤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수법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끝까지 주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차현욱 기자

친 이들 중 7명은 경찰과 지인의 설득에 자수했고, 나머지 3명은 거주지 등에서 체포됐다. 이후 책임 있는 경찰관 4명에게 모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집단 탈주극이 벌어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9월에는 광주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B씨가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에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동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핑계를 대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택과 담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이 B씨를 붙잡은 현장에서 마약 투약 도구 등이 발견되고도 체포 대신 임의 동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임의동행을 하던 중이었다며 ‘도주’가 아닌 ‘이탈’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경찰은 B씨에게 도주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 B씨는 도주 2시간여 만에 불잡혀 구속 송치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타지역처럼 강력범죄자가 도주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자를 쉽게 놓치는 경찰의 모습에 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여러 경찰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보고 쉽게 넘어가면 안된다”며 “조직 전반의 분위기가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경찰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훈 기자

CARBON TO GREEN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Hi SK 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앤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티테크놀로지 SK 이스온

미얀마 교전 격화에 민간인 피해 급증…“3주간 최소 150명 사망”

미얀마군, 소수민족 무장단체 공세에 공습·학살로 보복

쿠데타 군부가 집권 중인 미얀마에서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산주에서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학동 공세에 나선 이후 미얀마군의 포격, 공습, 집단학살 등으로 민간인 최소 15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인권단체들은 산주를 비롯해 카야, 친, 라카인, 사가잉, 만달레이 등 여러 주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 고 밝혔다. 미얀마군 전투기 2대가 17일 친주 한 마을을 폭격해 5~12세 어린이 8명 등 11명이 사망하고 학교와 주택 등이 파괴됐다.

16일에는 미얀마군이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라카인주 시트웨의 한 터운십(구)



미얀마 산주 난민들

을 공격하면서 민간인 약 20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달레이 지역마다 타운십의 찾집에 미얀마군이 들어닥쳐 주민과 손님 등 12명을 살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2~14일에는 미얀마군 전투기가

사가잉주 티자임 타운십 외곽 6개 마을을 폭격해 민간인 1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NUG는 주장했다.

아라칸군(AA), 타양 민족 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은 지난

달 27일 산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학동 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이 가세하면서 군정을 상대로 한 공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복에 나선 미얀마군이 공습과 포격 수위를 높이고 학살까지 자행하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크게 느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국경 지역에는 특히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 등으로 데려온 사람들을 온라인 사기 등의 범죄에 동원하는 불법업체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산주 중국과 국경 지역 불법업체에서 일하다가 교전으로 3주간 밭이 묵었던 자국민 41명을 귀국시켰다고 전날 밝혔다.

/ 이웅수 기자

대만 대선 야권 단일화 무산?

민중당 후보는 여지 둬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 최대 변수인 야권 총통 후보 단일화가 지난 18일 ‘1차 무산’된 가운데 제2야당 총통 후보가 제1야당과 후보 단일화 협상 의지를 다시 밝혔다.

1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총통 후보는 전날 오후 8시께 고향인 북부 신

주시의 한 사원 앞 연설 행사에 모인 지지자 1천여명 상대로 이같이 언급했다.

커 후보는 향후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지지자 질문에 “지난 5월부터 경선 구호는 ‘연합 정부, 대만 단결’이었다”면서

“어떤 때는 내가 그가 못마땅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해볼 수 있도록 시도해 봐야 한다. 이것이 연합 정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연합 정부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야당 국민당과 총통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민중당은 지난 18일 “여론조사 오차범위 인정에 대한 양당 인식이 다르다”며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대만 제1, 2 야당은 지난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단일화 결과를 18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인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야권 단일화는 아직 필요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만언론은 집권 민진당의 라이징더 총통 후보가 오는 20일 사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를 부총통 후보로 지명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백경준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바이든, 주요 여론조사서 트럼프에 모두 밀려…어게인 트럼프?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80세 고령 업무수행에 의문 제기”



바이든 대통령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당의 유력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CBS뉴스와 CNN, 폭스뉴스, 마켓대로 스쿨, 퀴니피액트 등 주요 5곳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격차는 작지만, 우위를 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전을 놓고 민주당 내 분열을 이유로 드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지난 80년간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의 정책은 진보 성향 인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념보다는 경제와 나이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쳐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달 초 발표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조지아 등 6개 주의 유권자 71%가 그가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다. 2020년에 이같이 답한 유권자 3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는 77세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거부감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 혼종민 기자

시진핑 “사소한 부주의가 나비효과 일으켜…위험 조기 발견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소한 부주의가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위험에 조기 대응하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지난 2월 7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당 중앙위원회 신규 위원 및 성급 부처 관리 수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이같은 연설 내용이 이달 중국 중앙문헌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지금 다양한 위험이 고도로 연결돼 빠르게 전달된다. 사소한 부주의가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작은 위험이 큰 위험이 되고, 위험은 일반적인 위험이 되며, 경제·사회적 위험은 정치적 위험이 된다”며 “위험을 조기 발견해 신속히 행동하고 최전선에서 지휘하며 위험에 발생하자마자 즉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이 큰일이 되도록 미루지 말고 큰일이 결국 터지도록 미루지 말라”라고 했다.

시 주석 당시 연설 일부는 앞서 공개됐지만 나비효과 관련 발언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시 주석은 최근 몇 년간 관리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위대한 투쟁을 하라고 촉구하며 경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제20기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과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높은 풍랑과 거칠고 사나운 파도, 위험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말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엄격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시 중국 당국은 적지 않게 놀랐다. 그 직후 중국은 12월 초 갑자기 코로나 19 방역을 해제했고 올해 1월에는 국경을 열며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했다.

/ 최준용 기자



17일 취임하는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몰디브 ‘친중’ 대통령, 취임 다음날

인도군 철수 공식 요구

중국과 인도가 영향력 확대 다툼을 벌이는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의 ‘친중 성향’ 모하메드 무이주 신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자국내 주둔 인도군 철수를 인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수도 말레 시장과 건설부 장관을 지낸 무이주 대통령은 대선에서 야당 국민의회(PNC) 후보로 나서 인도군 철수를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지난 9월 30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당시 대통령인 이브라힘 솔리 몰디브민주당(MDP) 후보를 8%포인트 차로 이겼다.

성명에는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 일정과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작지만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몰디브를 놓고 인프라 투자 및 자금 대출 등을 통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구가 500만 명인 몰디브는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 안자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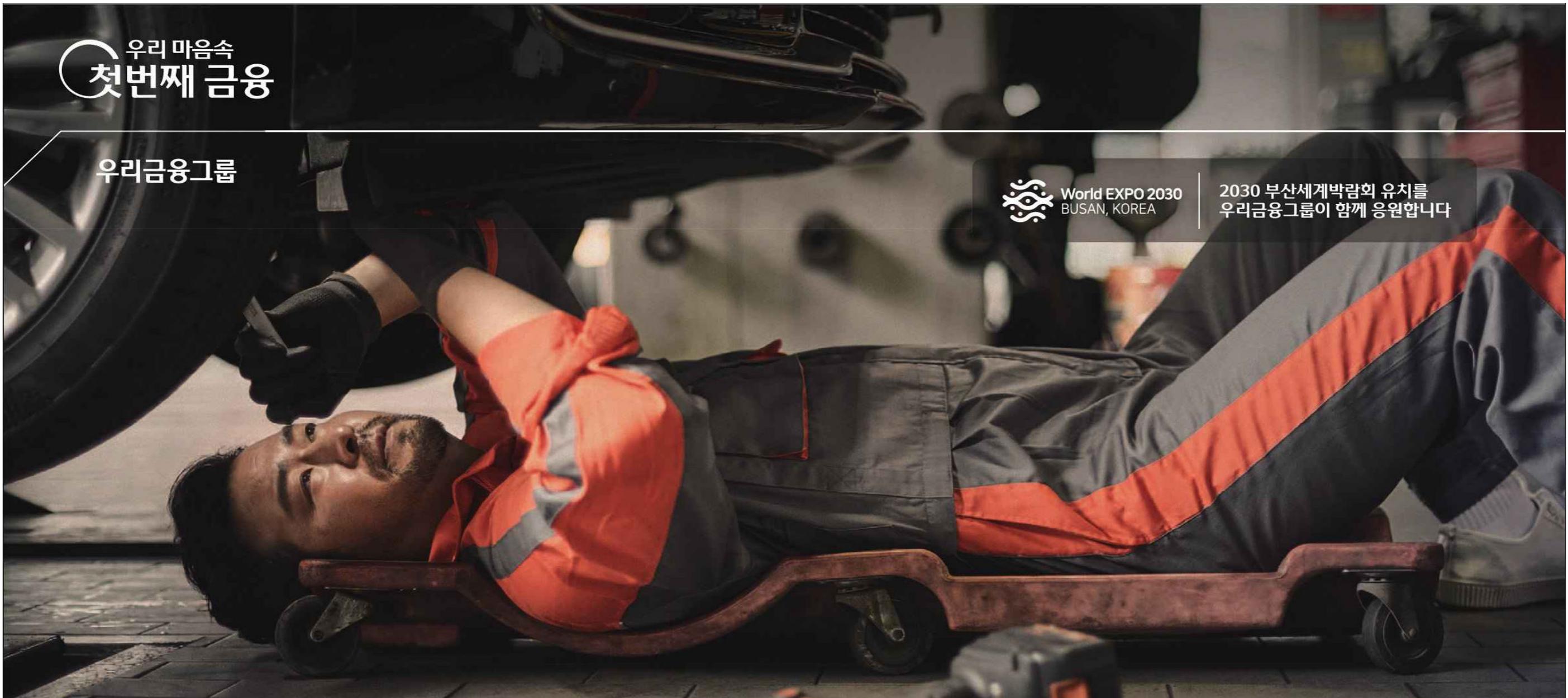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KI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로 향하는 길,
기아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LG 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 운용펀드 1조원으로 늘려

유망 스타트업 발굴로 미래 준비…5년간 64곳에 4천억여원 투자



지난 6월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연 제1회 'LG 오픈 이노베이션 서밋'

LG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운용 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늘렸다

LG는 앞서 2018년 LG 계열사의 주요 사업과 시니지를 넣 수 있거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설립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그동안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 등 LG 주요 회사 7곳이 출자해 조성한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약 70%를 소진했다.

이에 올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4개 계열사가 후속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를 결정해 1조 원이 넘는 펀드를 운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속적으로 신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신기술 투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방문,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LG는 지난 5년간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펀드 등 64곳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배터리, 모빌리티 등 분야에 투자한 비중이 낙폭 투자 금액의 절반에 이른다.

최근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음성인식 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거나이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연구진이 창업한 기업 '앤스로피'에 투자했다.

올거나이즈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AI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대규모 언어 모델인 '클로드2'를 공개한 앤스로피는 구글(20억달러)과 아마존(40억달러)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미국 스타트업 '인월드 AI' 등 유망 스타트업에 추가 투자도 하고 있다.

인월드 AI는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가상캐릭터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

트업으로, LG유플러스는 인월드 AI의 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상반기 어린이 대상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엘리먼트에너지'와 자율주행 대중교통 및 공공 셔틀서비스를 준비하는 '메이모빌리티'에도 각각 3차례 투자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이외에도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탈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를 포함해 노스존, USVP, 시에라, SBVA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박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환담

尹대통령 방미 계기 美기업 1조5천억 투자유치

GM·듀폰·IMC·에코랩 4개사 자동차·반도체 등 분야 투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의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에 약 1조5천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총 1조5천억원(11억6천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천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관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베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텐스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 권정석 기자

전국 90개 시장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1만원이나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고 행사 대상 시장을 90곳으로 늘렸다.



행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소희 기자

편의점 출입 없이 편리하게…CU, 장애인 위한 핵심서비스 도입



의 문턱이나 계단 탓에 불편을 겪는 이동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앱으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한 후 가까운 CU 매장에서 '차 안 핵심' 또는 '매장 앞 핵심'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CU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가 가능한 전국 약 1천여개 점포에 먼저 도입된다.

CU는 이 밖에도 편의점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도움벨·안내불 부착, 동선 폭 확대, 카운터 인근 훨체어 전용 공간 마련 등이동 약자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BGF리테일 손지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장애, 나이, 성별 등 의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실현하는 데 CU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친화 점포를 점차 확대해 이동 약자 고객의 구매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남유정 기자

SK텔레콤 반려동물 의료 AI 서비스, 호주·싱가포르 진출

SK텔레콤이 반려동물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엑스칼리버'의 수출국을 늘리고 진단 범위도 기존 개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했다.

엑스칼리버는 AI로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를 돋는 동물 의료 AI 서비스다.

SKT는 19일 엑스칼리버의 해외 공급을 위해 호주에서는 에이티엑스(ATX Medical Solutions)와, 싱가포르에서는 스미테크(Smitec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동물용 의료기기를 현지 동물병원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두 국가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입양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진단 범위



도 확대됐다.

SKT는 이날부터 엑스칼리버를 고양이의 흉부, 복부 진단과 심장 크기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자 차트 사업자인 '우리엔'

과 협력에 나섰으며, 향후 국내 모든 동물병원이 전자 차트에서 손쉽게 엑스칼리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더롭게

신한은행과 고객의 상생 스토리

“내 꿈이 멈췄을 때 다시 달릴 힘을 주는 은행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좋아서 시작한 학원인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부딪혀
‘학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처에게

대출 만기 연장에 원리금 상환 관리까지
제가 몰랐던 여러 방법들을

신한은행이 먼저 알려주고 청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저와 함께 해준 신한은행 덕분에
아이들 꿈도 저의 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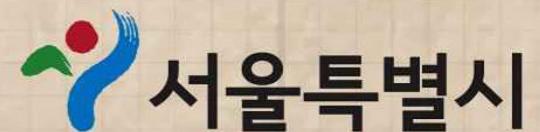
어려울 때마다 고객에게 힘이 되는
상생금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경기학회로 인한 대출으로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1~19개월(연장자 19주) 대출금 일부를 원리금 일부를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 기회를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SH의 혁신

**주택을 바꾸고
건설산업을 바꿉니다.**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신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총족 및 열린 경영 실천

적정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입,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설계도면 공개

원내에서 공개와 더불어 S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사전예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모두 공개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익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국내 첫 '보이는 미술관형 수장고'…세계적 건축가 서울 집결

서울시, 국제설계공모 시민에 공개…내달 1일 DDP서 공개 프레젠테이션

서울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설계 공모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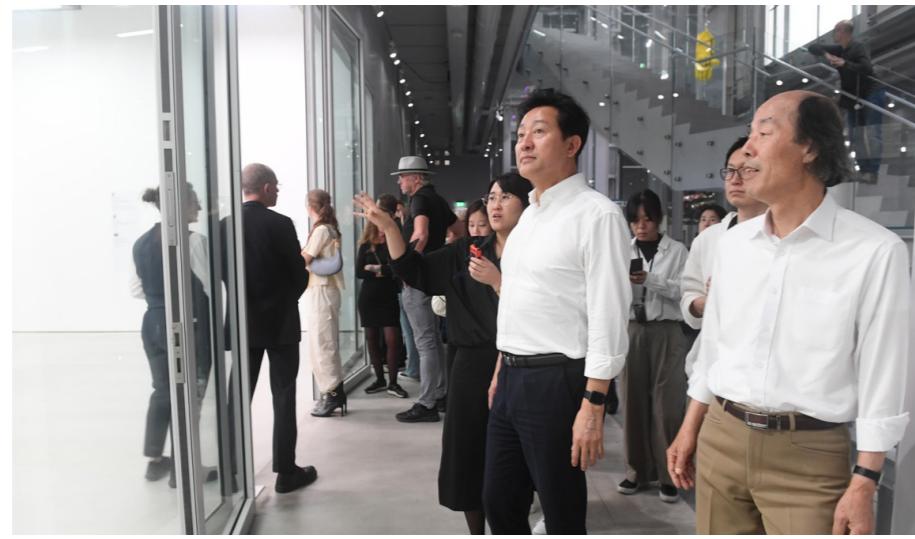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50분 DDP 아트홀 2에서 열린다.

서초구 서초동의 구 정보사령부 부지에 건립될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한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 과정을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의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다. 미술관형 수장고는 세계 뮤지엄 운영의 패러다임이 관리·수집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개방·활용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춘 시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출장 당시 '디포 보이만스 판 브닝언'을 둘러보면서 개방성과 접근성이 큰 영감을 얻어 극우 후보이는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박물관 공원에 세



디포 보이만스 판 브닝언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위진 이 수장고에서는 보이만스 판 브닝언 컬렉션이 소장한 15만점 이상의 작품을 수장·관리한다.

서울시는 수장고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8일 설계 공모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심사 단계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험적인 미술관 설계를 위

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카상을 수상한 건축가를 포함해 국내외 건축가 7명을 엄선해 설계 공모를 진행해 왔다. 해외 건축가는 총 4명이다. 스위스 출신 자크 헤르조그와 덴마크 출신 킴 허포스 닐센, 영국 출신 노먼 포스터, 네덜란드 출신 윈니마스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국내 건축가로는 유현준·임재용·조민석 씨가 포함됐다. 설계 공모 심사는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손진 이순건축 대표·민성진 SKM건축 대표·그레이스 라 미국 하버드대 교수·건축가 페르난도 매니스와 예비 심사위원인 존 흥 서울대 교수가 함께 진행한다. 공개 프레젠테이션에는 7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한다.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각 15분 발표와 25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0~22일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매일 250명씩 총 7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생각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 건축물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은경 기자



제주 필수증증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 원탁회의

필수증증의료 개선 위해 제주도민 지혜 모은다…도민 원탁회의 개최

필수 증증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호텔살롱제주에서 '제주 필수 증증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를 열었다.

개공 모집한 신청자 158명의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120명(도민 84명, 전문가 36명)을 원탁회의 참석자로 선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없는 유일한 권역이고 중증질환 전문 진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없어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에 제약이 많다"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필수 증증 의료체계 구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응급실 재이송, 소아과 진료 공백 등 문제가 잇따르는 실정"이라며 "제주도 지리적 문제로 제약이 많다. 도민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물이 정책방향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참여단은 제주지역 필수 증증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소그룹 토론과 종합토론회 했다.

제주도는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원탁회의는 앞으로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총 3차례의 논의를 이어간다. / 서종익 기자

부산 의료버스 성과 '톡톡'…질병 조기진단 사례 잇따라



비를 갖춘 의료버스에 의료진이 탑승해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의료버스 3대를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시는 또 지난 9월 의료버스 2대를 추가로 도입해 모두 5대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해운대부민병원이 부산을 서부산과 동부산, 원도심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위탁 운영한다.

이 과정에 의료진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초기 치매환자를 발견해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 덕분에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심혈관과 폐

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을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어르신도 의료버스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신속하게 치료받아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의료버스 5대를 계속 가동하고, 위탁운영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김민호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가축 전염병과 전쟁 중인데' 강원 수의직 공무원 태부족

18개 시군 확보율 37.5%…업무 급증·반려동물 민원으로 공직 기피

최근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원 지역자치단체들이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의 수의직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원은 15명에 불과해 25명이 부족한 상태다.

도내 지자체 중 정원을 확보한 곳은 횡성군(2명)과 양양군(1명) 등 2개 지자체뿐이다.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등 7개 지자체는 수의직 공무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에 의존하고 있다.

강원도의 수의직도 정원(86명)과 비교하면 19명이 부족하다.

도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고자 경력경쟁 채용을 지속해 추진하지만, 실제 임용률은 2021년 41%, 2022년 17%, 2023년 12%로 감소하고 있다.

밸런스를 내더라도 주거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서 임용 첫날 애초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동물 방역, 축산물 위생 안전, 반려동물 보호 등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데다 다른 직급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강원은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속출하면서 가축 질병 위기관리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 동원되는 일이 잦아지거나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주말에는 상황실 근무까지 하는 형편이다.

또 최근 수의대 졸업생들이 반려동물 분야 동물병원 개원이나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6년을 공부해 수의사 면허를 딴 신규 수의직들은 현장 채용 업무만 반복되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 민간 분야로 이동하는 추세다.



한우 농가 방역 점검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원 업무가 급증하는 것도 수의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도내 한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도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7급으로 채용하는 수의직을 6급으로 상향하고, 현재 4명인 전문관을 1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혈 업무는 민간 병원으로 이양하거나 수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울리 업무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5년째 위기관리 대응 경보가 심각 단계라는 것은 가축 전염병과 전쟁 중이라는 것과 같다"며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업무가 힘들어지다 보니 공직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날이 깁깝하다"고 말했다.

/ 신민경 기자

DB금융네트워크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DB자산운용 DB캐피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무적엘지 트윈스!
활주로가 조금 길었죠?
이제부터 날아오를 겁니다.

LG와 트윈스 모두 제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존재죠.
팬카페 쌍둥이 마당도 가입되어 있고,
경기장엔 못 가도 경기는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LG트윈스 우승했을 때,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LG 매장에서 우승 기념 세일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또 그날의 감격을 느끼게 되어 마음이 벅찹니다.
어릴 적부터 LG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LG는 유난히 저에게 친근하고 신뢰도 두터운 것 같아요.
U+모바일과 IPTV도 26년째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인생동반자 트윈스와 LG,
지금처럼 앞으로 더 흥해보자고요~!

U+ 26년차 고객 **최태현님**

최태현님의
**WHY
NOT?**

QR코드 스캔하고 최태현님의
와이너 스토리 더보러 가기



국회서 꿈쩍 않는 우주항공청법…속 타는 경남도민

도, 11월 본회의 때 처리 기대…통과 시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 가능

요즘 경남 시·군 어디를 가나 목 좋은 곳에 우주항공 청 조기 개청 촉구 플래카드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여기저기 난립한 정당 현수막보다 더 많이 눈에 띄 정도다.

박원수 경남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은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 청 조기 개청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 등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도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우주항공 청 예정지 사천시민들은 수백 명씩 국회로 올라가 입법 촉구 시위를 두 번이나 했다.

경남지역 대학생들도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우주항공 청 조기 개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남 곳곳에서 넘쳐난다. 그런 데도 '우주항공 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 청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져 경남도민은 속이 탄다.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 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우주항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경남도 역시 '민선 8기' 최우선 목표가 우주항공 청 개청이다.

그러나 연내 우주항공 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기습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19일 밝혔다. 법안 처리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경남도가 기대했던 지난 14일 국



박원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 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

방위) 전체회의는 애예 열리지 조차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우주항공 청 특별법을 심의한 안건조정 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전체 회의가 무산됐다.

경남도는 안건조정위 90일 활동이 지난달 말 빈손으로 끝났지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 청에 연구 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각각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장을 정리해 쟁점 대부분을 해소

했다고 이야기한다.

여야, 정부, 항우연 등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 청 특별법 수정안이 본회의 까지 가려면 국회 법상 안건조정위 경과보

고서 채택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후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

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우주항공 청 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11월 9일·11월 23일·11월 30일·12월 1일·12월 8일 등 5번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9일 본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12월 본회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다.

11월 두 차례 남은 본회의(23일·30일)

때 여야가 우주항공 청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경남도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박원수 경남지사는 23일 본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11월 중 우주항공 청 특별법 처리를 거듭 요청한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주항공 청 특별법 내용에 쟁점이 없다"며 "단지, 다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기간 통과시켜야 할 법안 1순위가 우주항공 청 특별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상호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최종 합의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려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11월 남은 본회의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 청 개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우주항공 청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주항공 청 개청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정기국회 폐회 후 각 정당은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최악의 경우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 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 황유찬 기자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발대식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해주세요"

국회 국민청원 올라와

경기 위례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서울시 편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에 국민청원 게시물을 올렸다.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가 작성한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 및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날 공개됐다.

이들은 게시 글을 통해 "위례신도시는 개발될 때 애초 송파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의 광역단체(서울·경기)와 3개의 기초자치단체(하남·성남·송파)로 나뉘어졌고, 그로 인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때 강남 대체 도시 명목으로 하나의 신도시로 개발됐는데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은 채 분양됐고, 개발 후

엔 관리유지가 행정 구역별로 진행되면서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경기 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고 분양된 건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을 왜 우리 시민이 감내해야 하느냐"며 "이런 잘못된 정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글을 게시한 김광석 대표는 하남 위례 입주자대표연합회장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하남시 위례·감일지구 주민 200여 명은 지난 8일 하남시 위례동 주민 센터에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하남 위례 주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이 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겠다"며 시민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 최진원 기자

권익위 "부산고검 인근 공용시설물 보호지구 재검토 필요"

개발제한에 토지주 건설사 민원…부산고검 "판결과 배치" 입장



부산 고층 민원 현장 찾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호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됐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권익위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한번 더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간담회를 열었다"며 "미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을 신청한 경동건설 관계자와 피신청인인 부산시 및 연제구청 관계자, 관계 기관인 부산고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 분쟁에 대해 부산고검은 경동건설이 해당 부지가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했고,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건설사의 개발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전국 광역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전국 광역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

/ 노승만 기자

"쉴랜드서 쉬세요"…순창군, 외국인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전북 순창군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인 쉴랜드에서 외국인을 위한 웰니스(Wellness·종합적 건강) 여행 상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게 참 좋은 순창 여행' 상품은 쉴랜드 내 1인 1실의 호텔식 침대방, 황토 짐질방 족욕과 짐질 체험, 힐링스파 체험, 편백금 체험, 강천산 산림 치유, 발효테마파크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음식 체험과 고추장 비

빔밥 만들기는 덤이다.

상품 가격은 1인당 15만원(1박2일)이다. 상품 문의는 군청 건강장수(☎ 063-650-1512)로 하면 된다.

인계면에 자리 잡은 쉴랜드에는 다목적 스포츠시설, 건강장수 체험관, 숙소동, 실내골프연습장, 카페, 짐질방, 방갈로 단지, 구절초 동산, 명상관, 치유의 숲, 숲속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다.

/ 윤희진 기자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잔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 고객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515

Sh 수협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한국 축구, U-17 월드컵서 사상 첫 조별리그 3전 전패 탈락

부르키나파소에 1-2 패…최하위로 대회 마감



동점 골 넣은 김명준

변성환호가 조별리그 3전 전패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월드컵을 마감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인도네시아 반동의 잘락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마지막 3차전에서 부르키나파소에 1-2로 졌다.

앞선 두 경기에서 진 한국은 이로써 3전 전패로 조 최하위에 그치며 대회를 마쳤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것은 2007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조별리그에서 전패를 당해 승점 1도 따내지 못하고 대회를 마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변성환호는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공격 축구를 펼쳐 역대 최고인 8강 너머의 성적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수비 불안과 골대 불운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과 1차전에서는 2차례 골대를 맞춘 끝에 1-3으로

졌고, 프랑스와의 2차전에서는 후반전 상대를 압도했으나 1차례 골대를 강타하고서 0-1로 패했다.

E조 1위에는 이날 미국에 3-0 완승을 거둬 3전 전승(승점 9)을 기록한 프랑스가 올랐다. 미국이 2승 1패(승점 6)로 2위에 자리했다.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김명준(포항·이하 프로구단은 산하 U-18팀)이 최전방에 섰고, 양민혁(강원)과 윤도영(대전)이 좌우 공격을 맡았다.

진태호(전북)와 백민우(용인시축구센터), 차제훈(종경고)이 중원을 책임졌고, 왼쪽부터 이수로(전북), 김유건(서울), 강민우(울산), 이창우(보이인)가 포백 수비라인을 구성했다. 수비진의 경우 변화가 없었던 1, 2차전과 비교해 강민우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바뀌었다.

골키퍼 장갑은 그대로 홍성민(포항)이였다. 한국은 부

르키나파소와 경기 전에 이미 16강 진출이 불발됐다.

이날 앞서 열린 F조 경기 결과 승점 4(1승 1무 1패)의 베네수엘라가 3위 팀 간 순위에서 4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탈락이 확정된 탓인지 밤이 다소 무거워 보인 한국 선수들은 공을 소유하고도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 어내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전 공 점유율에서는 64%대 20%(경합 16%)로 앞섰으나 슈팅 수에서 1-7, 유효 슈팅 수에서 0-3으로 밀렸다.

공을 잡으면 빠르고 매섭게 한국 진영을 몰아치던 부르키나파소가 전반 24분 째 디아라의 골로 먼저 앞서나갔다. 디아라는 역습 상황에서 발데 바의 전진 패스를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한국 골대를 갈랐다.

변성환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창우와 차제훈을 불러들이고 배성호(대전), 황은총(신평고)을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줬는데, 이게 통했다.

후반 4분 배성호의 패스를 받은 김명준이 수비수를 등지고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발 터닝슛을 날린 것이 골키퍼 손을 맞고 골대로 향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변성환호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으나 역전 골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결국 결승 골은 부르키나파소의 차지였다. 후반 41분 아부다카르 카마라가 슬레이마니 알리 오의 전진 패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결승 골을 뽑았다.

한국은 후반 50분 대각선 크로스를 김명준이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나간 것이 아쉬웠다.

/ 최준용 기자



김채연의 프리스케이팅 연기

피겨 김채연, 시니어 GP 5차 대회 최종 4위 '메달 불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김채연(16·수리고)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하며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김채연은 19일(한국시간) 페란드 에스포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4.42점, 예술점수(PCS) 61.81점, 감점 1점을 합쳐 115.23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6.19점을 따낸 김채연은 함께 181.42점으로 3위 앤버 글렌(미국·185.39점)에게 3.97점 차로 밀려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가 총점 205.21점으로 우승한 가운데 일본의 스미요시 리운(190.21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김채연은 이번 대회 4위로 랭킹 포인트 점수 22점을 쌓으며 랭킹 포인트 중간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김채연은 오는 24일 개막하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최종전인 6차 대회 'NHK 트로피'(24~26일·일본 오사카)에 출전하는 경쟁자들의 결과에 따라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12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치러지는 그랑프리 파이널은 이번 시즌 성적 상위 6명만 출전하는 대회다.

특히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준우승한 니나 페나로네(벨기에·랭킹 포인트 13점)가 NHK 트로피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

을 거두면 김채연의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은 불발된다.

이번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에 데뷔한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 연기에서 두 차례나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 어텐션(예지 사용 주의)과 회전수 부족 판정이 나온 게 아쉬웠다. 더블 악셀(공중 2회전 반)로 연기를 시작한 김채연은 이어진 트리플 러츠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감점 1에 수행점수(GOE)도 2.95점이나 깎였다.

김채연은 트리플 러프를 깔끔하게 뛰고 나서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이어갔다.

하지만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 어텐션과 쿼터 웨이딩(회전수 부족) 판정이 겹치며 GOE를 1.14점 손해 봤다. 김채연은 플라잉 콤비네이션 체인지 풋 스팟을 레벨4로 소화하며 연기의 전반을 마쳤다.

가산점 구간에 들어간 김채연은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러프 콤비네이션을 시도했고, 트리플 플립에서 어텐션과 언더 로테이티드(회전수 부족) 판정이 나와 GOE를 1.88점 깎았다.

이어진 트리플 러츠 점프에서 더블 악셀을 시퀀스로 연결했으나 착지 불안으로 점수를 손해 봤고, 플라잉 카멜 스팟(레벨3)과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팟(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 이준혁 기자

영국 매체 “올버햄프턴, 황희찬 측과 재계약 논의 시작”

디애슬레틱 “협상 긍정적으로 진전…황희찬, 오닐 감독 체제에 만족”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잉글랜드)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과 재계약 논의를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9일(한국 시간) “올버햄프턴이 새로운 계약을 놓고 황희찬 측과 대화 중”이라며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희찬과 올버햄프턴의 현 계약은 2026년에 만료된다.

이 매체는 “황희찬이 계약을 연장할 것

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며 “구단은 황희찬의 경기력에 대한 보상으로 개선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최근 올버햄프턴의 ‘에이스’로 떠올랐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2경기를 뛴 황희찬은 6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공식전을 통틀어 7골로, 지난 시즌(4골)이나 EPL에 데뷔한 2021-2022 시즌(5골) 기록은 벌써 넘었다.

올 시즌 팀에서도 최다 득점자로 등극 했다. 황희찬을 빼면 5골 이상 득점한 선

수가 아직 없다. 투톱으로 합을 맞추는 마테우스 쿠냐는 2골, 샤샤 칼라이지치는 3골을 각각 넣었다.

특히 황희찬의 최근 기세가 매섭다.

지난 14일에는 구단이 주는 10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황희찬은 11일 토트넘과 홈 경기(2-1 승) 전까지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3골 2 도움)를 기록했을 정도로 감각이 예리했다. 황희찬의 활약을 앞세운 올버햄프턴은 지난 9월 말 맨체스터 시티전(2-1 승)을 시작으로 이후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황희찬

를 거두며 시즌 초 부진을 털어내는 분위기다.

4승 3무 5패를 거둔 올버햄프턴(승점 15)은 12위에 자리해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 손현수 기자

국토의 입체화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원으로 리해설 중

UX 한국국토정보공사



액션은 강해지고 이야기는 약해진 느낌...영화 '독전 2'

한국 영화 첫 '미드웰'...한효주 파격적 연기 변신

2018년 개봉한 이해영 감독의 '독전'은 탄탄한 이야기에 국내 범죄 영화에선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분위기를 입힌 작품으로, 520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했다.

'이 선생'으로 불리는 거대 마야 범죄조직 보스를 캐스팅한 형사의 이야기다. 영화는 이 선생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이어간다.

노르웨이의 외딴 오두막에서 총성 한 발이 울리는 마지막 장면도 그 안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총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어 관객의 상상을 자극한다. 지난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백종열 감독의 '독전 2'는 전편이 남긴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보여준다.

영화의 속편이 전편보다 시간상 뒷이야기일 경우 '시퀄'이라고 하고 앞선 이야기일 때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독전 2'는 '미드웰'에 해당한다.

전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 혈투와 노르웨이의 오두막 총격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에서 미드웰은 처음이다.

잔인한 장면도 적지 않다.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내던지는 장면도 나온다. 15세 관람가인 전편과 달리 이 영화



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다. 액션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이야기의 긴장감은 떨어진 느낌이다.

이 영화에서 이 선생은 생각보다 일찌 정체를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관객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반전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전편에서 원호가 이 선생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호텔을 찾다가 국내 마야 범죄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중국 범죄조직 우두머리와 협상하는 장면처럼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장면도 이번에는 찾기 어렵다.

캐릭터는 섭소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편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원호와 브라이언은 캐릭터뿐 아니라 배우도 전편과 같지만, 락은 류준열에서 오승훈으로 바뀌었다.

오승훈은 오디션에서 약 3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됐다. 전편에서 류준열이 보여준 강렬한 인상엔 못 미치지만, 락이라는 비중 있는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

한효주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다양한 장르와 배역을 넘나든 배우지만, 평소 이미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칠고 무자비한 빌런을 연기했다. 배우로서의 도전은 높이 살 만하지만, 변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릴 듯하다.

백 감독은 광고 디자이너로 시작해 광고와 뮤직비디오 연출 등을 하다가 한효주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2015)로 데뷔했다. / 김채원 기자

남궁민·안은진의 '연인'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남궁민과 안은진이 주연한 드라마 '연인'이 마지막회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 MBC가 방송한 '연인'의 시청률은 12.9%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회차가 기록한 종전의 자체 최고 시청률 12.4%보다 높다.

마지막 방송은 역도로 몰린 이장현(남궁민)이 관군에게 쫓겨 유길재(안은진)와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재회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장현은 관아에 불잡혔던 포로들이 탈옥하기를 기다려 함께 능군리로 도망치려 하는데, 도착한 포로들에게서 양천(최무성)이 혼자 관군을 유인하려고 불잡혔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에 이장현은 길체와 포로들을 먼저 능군리에 보내고 자신은 뒤쫓는 관군에 맞선다. 이장현을 뒤쫓는 일을

지휘한 남연준(이학주)은 이장현과 역도들을 모두 죽였다고 조정에 보고한다.

얼마 후 남연준은 사실 이장현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고, 이에 유길재는 이장현의 마지막 행적을 캐스팅한다. 이장현은 기억을 잊은 채 유길재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헤매고 있었다.

유길재는 자신이 "서방님과 능군리 옆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능군리 옆 산을 향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혼자 지내는 이장현과 마주친다.

기억을 잊었던 이장현이 마침내 유길재를 알아보고 서로 끌어안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연인'은 병자호란 전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가상의 인물인 이장현과 유길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퓨전 사극이다. 당초 20부작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인기에 100분 분량의 21부를 추가 편성했다.

이 드라마는 사극의 멋을 살린 빼어난 연출력과 감성적이고 애절한 대사, 주연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청률이 방영 초 최저 4.3%로 떨어졌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져 후반에는 대부분 회차가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 백성호 기자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의 로맨스 '인사하는 사이' 캐스팅 확정

SBS 새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제작)에 배우 한지민과 이준혁이 출연한다고 SBS가 밝혔다. SBS는 내년 방송을 목표로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 제작에 착수했다.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헤드헌터 회사 CEO와 육아와 살림, 일까지 잘하는 비서의 로맨스가 주요 내용이다.

한지민은 잘 나가는 헤드헌터 회사의 CEO 역이다. 당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췄지만, 모든 에너지를 일에만 쏟다 보니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준혁은 상사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싱글 대디 비서 역으로 출연한다. 매너 좋고, 배려심이 깊으며, 한없이 다정해서 의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제작진은 "헤드헌터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의 스위치를 끄고 살았던 깨칠한 CEO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비서의 보살핌을 받으며 변화해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 양희진 기자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 결성

4개국 출신 6인조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를 통해 선보이는 6인조 신인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베일을 벗었다.

하이브는 18일 오후 미국 할리우드 XR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 최종 결선에서 신인 걸그룹 최종 멤버로 소피아(필리핀), 라라(미국), 윤채(한국), 메간(미국), 다니엘라(미국), 마농(스위스)을 선정했다.

이들이 활동할 6인조 걸그룹 이름은 캣츠아이로 정해졌다.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는 하이브가 글로벌 대형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진행한 오디션이다. 하이브가 처음으로 자체 진행한 한미 합작 오디션 프로젝트로 가요계의 관심을 모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저의 오랜 꿈을 현실화시키고, 이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몰린 12만명의 지원자 가운데 6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20명의 참가자가 이 오디션에 참여했다.

이날 결선 무대에서는 이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참가자 10명이 무대를 꾸몄다.

미트라 다립 HxG(하이브와 게펜 레코드의 합작 법인) 대표, 손성득 HxG 총괄 크리에이터, 찰리 크리스티 인터스코프 A&R(Artists and Repertoire) 및 마케팅 부대표가 댄스, 보컬, 스타킹, 태도, 팀 케미스트리(Chemistry)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심사했다.

한국인 합격자 윤채는 "너무 행복하고 데뷔하게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울먹였고, 소피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저를 믿어준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시혁 의장과 존 재너 게펜 레코드 대표는 최종 합격생이 배출된 뒤 "이들의 출발점과 앞으로의 행보, 잠재력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황지연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유니세프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매월 30,000원이면
매년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0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www.unicef.or.kr (02)737-1004

SAMSUNG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